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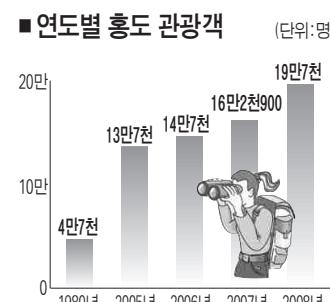
홍도 관광객 20만명 시대

천혜의 신비를 간직한 섬, 신안 홍도가 국내 최고의 해상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와 고환율 등으로 외국 관광객이 주춤하면서 홍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관광객 20만명 시대를 맞게 됐다.

5일 신안군 홍도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980년부터 관광객 인원 수를 집계한 이래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달 말까지 관광객이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군은 20만명 돌파를 기념해 20만 번째 관광객에게는 무료 숙박권과 유람선 승선권, 특산품 등 다양한 기념품을 줄 계획이다.

1980년 4만 7천명이던 관광객은 1995년 13만 7천명, 2006년 14만 7천명, 2007년 16만 2천900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었으며 올들어 지금까지 19만 7천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홍도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와 고환율로 관광객들이 국내로 눈을 돌린 데다 신안군이 홍도의 비경을 전국에 집중적으로 홍보한 점 등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목포에서 뱃길로 115km인 홍도는 1965년 4월 7일 전연 기념물 제10호로, 1981년 12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제478호로 지정된 '서해의 해금강'이라고 불릴 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지난달 27일 오전 광주보문고등학교 도서관 '배움누리'에서 1학년 독서지도 선생님과 학생들이 독서노트 '읽었수다'를 보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위직령기자 jrw@kwangju.co.kr

'우수 도서관' 선정된 광주 보문고 도서관

“매점 가듯 도서관 갑니다”

하루 평균 책 100권 대출

황홍해 수완에너지 본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유치전략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거래소, 전남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유치 노력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정철웅 상임고문은 “앞으로 경제와 편의논리를 만들어진 건축물을 ‘사랑방’과 ‘저탄소 종점’에 따라 기본 시각을 저탄소 녹색프랜들리로 과감히 전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녹색성장 포럼을 운영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 연구'를 발표한 조선대 이인화 교수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탄소은행 시행과 1천만 그루 나무심기 등 성공사례를 확대해야 한다”며 “점심시간과 퇴근 1시간 전 냉·난방기를 끄기만 해도 2만3천t의 이산화탄소가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황홍해 수완에너지 본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유치전략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거래소, 전남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유치 노력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정철웅 상임고문은 “앞으로 경제와 편의논리를 만들어진 건축물을 ‘사랑방’과 ‘저탄소 종점’에 따라 기본 시각을 저탄소 녹색프랜들리로 과감히 전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녹색성장 포럼을 운영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 연구'를 발표한 조선대 이인화 교수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탄소은행 시행과 1천만 그루 나무심기 등 성공사례를 확대해야 한다”며 “점심시간과 퇴근 1시간 전 냉·난방기를 끄기만 해도 2만3천t의 이산화탄소가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작종 행사 마련 독려… 학생들 “이전 생활의 일부”

작종 27일 오전 보문고 도서관은 “작종을 맞아 책을 빌리는 학생들과 도서관 한켠에 마련된 교실로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로 붐볐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생활화하기 위해 영어 등 일부 교과목의 수업을 도서관 내 교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 사서 신경명(여·31)씨는 “작종 초 현장 실사를 나온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가 학생이 1천198명인 우리 학교 도서관의 하루 대출 도서량이 평균 100여권에 이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도서관 평가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학생들의 높은 도서관 이용률이 한 몫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학년 정든이 양은 “수행평가에 반영되는 독서노트 때문에 학기 초부

생들이 빌린 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고 있었다.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1학년 도서 생활을 지도하는 이현주(여·26)교사가 학생들이 책을 읽은 뒤 소감을 적은 독서노트 ‘읽었수다’를 보며 대화를 나눴다.

도서관 사서 신경명(여·31)씨는 “작종 초 현장 실사를 나온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가 학생이 1천198명인 우리 학교 도서관의 하루 대출 도서량이 평균 100여권에 이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도서관 평가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학생들의 높은 도서관 이용률이 한 몫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터 책을 빌리려 들르고, 수업을 듣기 위해 도서관에 자주 찾게 됐다”면서 “이제는 마치 ‘매점에 가듯이’ 도서관에 오고 책을 보는 게 습관이 됐다”며 웃음 지었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도서관의 전략도 남달랐다.

작년 말 둘째 주에는 “달콤한 책의 날”이라는 행사를 벌여 1주일 종이를 이상 책을 빌린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며 독서참여를 유도했고, 이 달에는 ▲‘권장도서 독후감 대회’를 열어 우수 학생을 표창하고 문화상품권 등 상품도 줄 계획이다.

연중 계속되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가 학교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고심해온 흔적이 역력했다.

정승호 교장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자주 찾고,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노력했다”며 “책을 통해 인성교육을 하고 교양을 쌓는 것에 역점을 두었는데, 독서 교육의 효과 때 문인지 3학년 학생들의 대학진학 성적도 우수해진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산화탄소 줄이기 시민도 함께”

광주시청서 ‘기후변화 대응 추진위’ 회의

5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범시민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이산화탄소 절감 방안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나왔다.

박광태 시장과 이승기 상공회의소 회장, 안희석 YWCA 사무총장을 비롯해 산업체와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로 추진한 연구 과제와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시민참여 방안 등이 발표됐다.

환경녹지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시민참여 방안 연구’를 발표한 조선대 이인화 교수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탄소은행 시행과 1천만 그루 나무심기 등 성공사례를 확대해야 한다”며 “점심시간과 퇴근 1시간 전 냉·난방기를 끄기만 해도 2만3천t의 이산화탄소가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주최로 5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제15회 서울국제암포포럼’에서 서울 대의대 예방의학과 안윤옥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역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안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알코올 섭취량이 60g 이상이면 결장암은 2.5배, 직장암은 1.7배 가량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을 마시면 대장암 발생위험이 비음주자에 비해 1.8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암연구재단(이사장 안윤옥)

광고 접수 안내

완도 명사십리 땅 금매매

- 신지면 신리 420-1 740평 평당 11만 원
- 신지면 신리 448-1 500 1,000평 평당 15만 원
- 신지면 대포리 1946-8 350평 평당 39만 원

바닷가 요지, 관리지역, 도로집 팬션부지

▶ 7월 달 관광지 승인, 주인직매 ☎ 011-765-3388

수입차 Ⓜ 의료장비 리스·할부·여신금융

◆ 수입차 할부 및 리스, 담보대출, 산업리스, 중장비, 산업채

◆ 중고차 1억 이상 운영자금

의료장비(MRI, CT) 병원개업자금 대방출

(1억 ~ 60 억 까지 대출)

대우캐피탈(주) 차장 손 훙준

011-649-0874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

매일 소주 3~4잔 이면

대장암 위험 1.8배 증가